

제4회 일본 진단 세미나

- ◆ 주제: 현대적 관점에서 본 일왕의 전쟁 책임
- ◆ 일시: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15:00-17:00
-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 Room
- ◆ 발표: 박진우 (숙명여대 일본학과 교수)

■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6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분량을 요약한 것입니다만, 사진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되도록 알기 쉽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황'이라는 단어는 6, 7세기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낮추는 의미를 담아서 '일왕'으로 굳이 바꾸어 부를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본에서도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천황 뒤에 '폐하'를 더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저는 '일왕'보다는 '천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쇼와 천황의 전쟁 개입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천황에게 분명한 전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의 또 다른 포인트는, 연구 수준에서 이미 상식이 된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천황의 전쟁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인의 애매한 태도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봉인하는 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천황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에 등장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천황은 실질적 정치권력을 갖지 않았고, 교토 황궁 안에 칩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황제에 대응하는 칭호로서 '천황'이 정착되었습니다. 다만 '천황제'라는 말이 나온 유래는, 일본공산당의 혁명운동에서 타도해야 할 투쟁대상으로서의 권력을 '천황제'라는 용어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황'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이 '천황제'라는 용어 속에는 천황에 대한 투쟁의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책임을 논할 때의 '천황'은 쇼와 천황, 즉 히로히토를 가리킵니다. 쇼와 천황은 1926-45년의 20년 간은 절대군주로서 통치하다가 1946년부터는 헌법이 바뀌면서 상징천황으로 변모합니다. 하나의 재위 기간에 두 가지 천황의 모습으로 국가를 통치한 것이죠. 먼저 근대 천황상의 형성과정에 관해서 보면 메이지 초기에는 근대 천황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화가를 동원해 서구 황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린 천황의 초상화가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또 1889년에 대일본제국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제1조에 천황주권, 제2조에 황위계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 조항은 남자 장자 우선의 황위계승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와서 황태자의 외동 딸이 태어나자 여성 천황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3조는 천황의 신성 불가침, 제4조는 통치대권, 제11조는 군사통수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조는 천황의 이름으로 군부가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었고, 제28조의 신교의 자유 조항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폐단을 낳기도 했습니다.

1912년 메이지 천황 사후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표면에 모습을 거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일 쇼와 천황이 되는 히로히토가 황태자 시절부터 섭정을 맡았고, 1926년 천황으로 즉위합니다. 이때까지는 군 최고 지도자로서의 천황의 모습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 부상과 함께 천황은 점차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시기에는 국가와 군 통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문부성이 제작, 배포한 '국체의 본의'에도 만세일계의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의 조칙에도 먼저 천황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고, 그 이후 국무대신들도 따라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1942년 미드웨이 해전 이후 3년간, 일본은 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학도병으로 떠나는 인원수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메이지 신궁이나 야스쿠니 신사 등을 참배하고 전장에 나가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자결하는 병사와 민간인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도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았고, 도쿄대공습이나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집단 자결이 셀 수 없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카미카제 특공대가 유서를 쓰고 전장에 투입되는 와중에도 집단 신사 참배는 계속되고, 미군과의 본토 결전까지도 각오하라는 의미에서 부녀자들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경은 천황의 어전회의 사진입니다. 8월 12일에 이미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파들이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14일에 다시 어전회의를 열고 천황이 이른바 2차 '성단(聖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을 모아 15일 정오에 중대발표를 한다며 조간신문을 돌리지 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천황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종전조서'는 라디오를 통해 육성으로 방송도 되었는데, 내용 중에 어디를 보아도 패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측의 전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도쿄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군부의 주요 전범 25명은 전원유죄를 받고, 7명에게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맥아더 장군은 천황제를 유지하고 전쟁 책임을 면해 주기로 합니다. 이때 연합국에서는 천황을 히틀러와 같은 존재로 보아서 면책에 대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맥아더는 천황이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어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천황에게 인간선언을 하게 했고, 천황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천황의 전국순행 때 가는 곳마다 일본 국민들이 열광하는 모습들을 각국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까지는 천황이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독백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독백록이 천황 사후에 공개가 되었는데, 천황의 전쟁 개입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히가시노 마코토라는 NHK 기자가 미국에서 독백록의 영어판을 발견하고, NHK가 두 개의 독백록에 대한 특집방송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독백록을 통해 천황의 전쟁 책임 면책이 미일 간의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47년 새로 시행된 일본국헌법에서는 국민주권과 '상징천황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쟁포기, 교전권 부인 조항과의 교환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보장해 주고, 애매모호하지만 '국민의 총의'에 기초해서 천황제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징적인 존재가 된 천황은 1975년까지 일곱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령을 위로할 존재는 천황이 가장 적임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1975년 이후부터 별세까지의 13년 동안 천황은 야스쿠니 신사를 전혀 참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천황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생물학자로서의 천황의 모습이 의도적으로 자주 연출되고 국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황궁에서 원유회를 열고 각계의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를 받는데, 그 장소에서는 천황이 마치 구름을 타고 솟아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황의 권위에 굴복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원유회가 1988년 9월에 열리고, 쇼와 천황은 1989년 1월에 별세를 하죠. 당시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격동의 쇼와'라고 보도를 하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추모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해외 사절단들이 조문을 하러 와서 외교적 교섭을 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영국의 일간지 'The Sun'은 '지옥이 기다린다, 이 사악한 천황을'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기도 하고, 재미 중국인들이 뉴욕타임스에 '또다른 히틀러'로 천황을 묘사하는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우익들의 주장들이 잇따릅니다. 천황 별세 전 1988년 12월 나가사키 시의회에서, 공산당 의원이 '천황은 전쟁범죄자인데, 시장께서는 전쟁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나가사키 시장이 '전쟁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수많은 항의서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우익들의 협박으로 나가사키 시장은 귀가도 못한 채 장기간 시장 관저에서만 지냈습니다. 여하튼 천황 별세 후 장례 기념비나 기념 공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계속 규모를 축소했는데, 그래도 우익들은 '천황의 성덕을 이어가는 모임'이라고 하여 매년 4월 29일을 기리고 있고, '미도리의 날'을 '쇼와의 날'로 바꾸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책임에 대한 일본의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결과를 보시면 '전쟁책임 있다'와 애매한 답들(일부 있다 또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있다'는 애매한 답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06년 도쿄재판에 대한 여론조사 중에, '전쟁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군부의 책임이 제일 무겁지만, 천황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42% 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무거운 책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합산하면 8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의식화하는 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전쟁책임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천황의 책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궁내청의 비밀주의, 언론의 영합보도, 우익의 테러, 그리고 천황제를 수용하는 국민적 심성 또한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아예 봉인하는 패턴들도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과학자, 생물학자로서의 천

황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군국주의자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쟁이 가장 싫은 기억'이라는 천황의 발언들이 보도되면서 평화주의자, 입헌주의자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들이었고, 천황은 전쟁 종결에 대한 '성단(聖斷)'을 내려서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웁니다. 또한 외국에서 라이샤워 같은 유명인사들이 천황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경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측근의 증언이나 일기, 메모 등이 발견되어도 선별적으로 공개되거나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포장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은 헤이세이 시대에도 그대로 답습됩니다.

2005년에는 쇼와기념관이 건립되고, 2007년에는 '미도리의 날'이 '쇼와의 날'로 바뀝니다. 헤이세이 천황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위령여행을 다니기도 했지요. 이러면서 전쟁은 쇼와 천황과 단절된 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대진재 이후에는 천황의 역할이 '위령'에서 '치유'로 변화되어, 자애롭고 인자한 군주의 이미지가 정착됩니다. 헤이세이 이후 신년 및 천황 생일의 일반 축하객 수를 보면, 이전에는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왜 쇼와 천황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했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도미타 메모'라는 것이 특종으로 보도됩니다. 이 메모에는 쇼와 천황이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8년 시점에 천황이 이런 불쾌감을 느낀 이유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88년 쇼와 천황 생일 직전까지 각료들이 잇따라 무책임한 발언을 하거나 야스쿠니에 공식 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당시 수상이 최초로 공식 참배를 했는데, 1년 후인 1986년 8월 15일 윤했다는 천황의 와카 내용 중에 '올해 이 날에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근심은 깊고'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후지오 문 부상이, 1988년 4월 22일에는 오쿠노 국토상이 역사인식과 관한 망언을 합니다.

천황은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전사자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신사의 성격이 변하고, 전쟁에 관계한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깊은 화근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미타 메모뿐만 아니라 시종이었던 우라베의 일기 등 다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천황의 본심은 더는 이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을 텐데, 아마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면 본인의 전쟁책임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도 이시하라 신타로, 아소 타로 등 우파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천황의 직접 참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령들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천황이 친히 야스쿠니에 참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발언들은 한국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고, 다른 피해국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황의 한국 방문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궁중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쇼와 천황이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는 실로 '유감'이며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발언이 진실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당시 아사히신문의 독자투고란을 보면 일본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상징천황으로서 최대의 표현이며, 말씀의 의미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 한국인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미가 크다', '천황폐하가 불쌍하다, 누가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인가' 등 전전의 천황제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견이 있는 반면, '적어도 사죄에 해당하는 솔직한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유감이라는 애매한 한 마디로 청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때는 '그런 식의 사과를 받으려거든 가지 말라'는 국내의 방일 반대 여론에 부딪쳐 양국 간에 상당한 물밑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천황 발언에는 '누가'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를 만들었는지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 때는 '우리나라'에 의한 '불행'이라고 일본이 가해자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더 전향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일 때도 천황의 유감 발언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가'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방일 때는 이전과 유사한 언급이 없었고, 이대통령 방일 때는 심지어 대통령 일정상의 이유로 단 20분간의 회견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이대통령이 천황의 한국 방문을 권유했었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천황 방한을 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매듭짓자는 상징적 의미에서 초청을 하는 것일 텐데, 천황이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1992년 헤이세이 천황의 방중 전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천황 방중에 대해 우익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미야자와 당시 총리가 우익의 거두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한 끝에 겨우 방중이 성사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천황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중국교정상화 20년을 성대하게 기념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황이 방문했다고 해서 중일간에 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르러 더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만약 천황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라고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는 사죄외교, 굴욕외교라고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천황'을 '일왕'이라고 부르는 호칭 문제도 복잡할뿐더러, 묻혀져 왔던 전쟁책임 문제가 방한을 통해 분출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일본 국내에서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봉인하고 망각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전쟁 책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계기를 야스쿠니 문제나 천황의 방한 문제로 보는 것이고요. 이런 점들이 바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Q1) 일반적으로 '전쟁책임'에는 개전 책임, 전쟁 패배 책임, 전후 처리 책임, 이 세가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2페이지의 여론조사 자료에서는 '전쟁책임' 안에 이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섞여 있는 것인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만들어진 천황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고, 이런 천황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한일관계를 펼쳐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선생님의 입장이신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한일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평화주의자로서의 천황 이미지를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의 아키히토 천황은 그나마 우호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본인이 도움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천황이 가진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만한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1) 먼저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점상 1975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도 감히 여론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에 천황이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미국 언론과는 몇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했으면서 일본 언론과는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단 대표들이 모여서 최초로 TV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사실 이럴 때는 즉석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내청에서 모든 질문을 사전에 체크하고, 내용을 조율하고 나서 실제 회견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미리 맞춰진 질문을 하고 나서, '관련된 질문은 함께 해도 좋다'는 지시가 나오면 그때는 즉석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 관해 더 관련 질문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다른 일본기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사이에 런던 타임스 소속의 일본인 기자가 즉석 질문을 합니다. "폐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백악관 만찬에서 '내가 깊이 슬퍼하는 저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폐하께서 전쟁책임이 있다는 뜻입니까? 전쟁책임에 대해 폐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천황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라 답변을 잘 못하고 "나는 문학 방면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발언의 미묘한 의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보던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는, 천황이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대답을 같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분분했던 거죠. 이 일이 없었더라면 천황 별세 후 1989년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마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1975년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나카소네 정권이 천황 이데올로기를 가장 많이 이용할 때인데, 그만큼 천황 비판 여론도 컸던 당시 상황도 여론조사 실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여론 조사 문항에는 '전쟁책임'이라고만 나와 있었고, 세부적으로 개전, 전후 책임이나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이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아키히토 천황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고, 이미지도 진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한일 우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쇼와 천황이 저야 할 역사적 책임과, 더 나아가서는 천황제에 큰 영향을 받은 식민의 역사에 대한 의미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외교나 정치 차원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천황제라는 시스템이 가지는 부정적 부분이 망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Q2) 천황제가 가진 부정적 측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황위 계승이나 세금 낭비 등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기도 하고, 천황 생일 축하객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천황제 자체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가문의 모습 정도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천황제가 젊은 세대 속에서 어떤 의미로 지속될 수 있는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3) 이번에 이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 이후 한류가 냉각된 것을 보면, 한류 팬과 황실 팬이라는 두 집단 간에 정서적 유사성 같은 게 있어서 서로 겹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천황제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고 천황과 황실에 대한 무관심이 늘면서도, 의외로 천황에 대해 경외하고 존중하는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황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지요.

A2,3) 여론조사를 보면 아키히토 천황 즉위 직후에는, 히로히토 천황보다 카리스마도 줄어들고 해서 천황과 황실에 대한 무관심증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오면 오히려 무관심이 줄어들고, 황실 존속을 지지하는 여론이 유지됩니다. 신년 참배객 수도 1994년을 제외하면 줄어들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실은 일본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인기를 유지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보통 때 천황이 별로 TV 출연을 안 하는데, 당시에는 천황과 황족들이 언론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건 궁내청과 언론의 연계가 분명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황의 대국민방송은 1945년 옥음방송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총리의 발언이 방송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죠. 이런 이미지가 황실 존속에 큰 영향을 갖는 겁니다. 황실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천황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이제는 천황이 전쟁의 기억을 지우는 역할보다는 지진 같은 자연 재해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치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황제에 대한 모순된 시각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천황제가 만세일계라고는 인정하지만, 지금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천황의 모습은 대부분 메이지 시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천황제는 전통이지만 점점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고,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절대천황제와 상징천황제는 다르고 전전·전후 헌법도 다른 면이 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Q4) '전쟁책임이 없는, 힘없는 천황은 전후에 만들어진 스토리'라는 내용의 BBC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독일은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인데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하거든요. 독일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동안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남겨서 도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계속 책임을 부인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일본도 피해국에 대해 천황이 사과를 하게 해서 국익 면에서의 실리를 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4) 아키히토 천황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특히 외무성과 총리, 궁내청과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외무성에서는 천황의 역할을 바라는 측면이 있는데, 가장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곳은 궁내청이죠. 황실외교와 정치는 구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반대도 심하기 때문에 천황 방중 때 미야자와 총리가 우파 대표에게 직접 가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또 아키히토 천황이 방한할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게 한일월드컵이 공동개최된 2002년인데, 그때도 인터넷 우익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일감정이 심해서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궁내청이 천황 사과를 거부하는데, 외무성이나 천황 자신

이 단독으로 사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Q5)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행보를 볼 때 천황이 의미 있는 위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황이 지속적으로 인자한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온 성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동일본대진재 이후 그런 이미지가 훨씬 강력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요. 총리가 피재민을 방문하면 비난을 많이 받는데, 천황이 방문하면 특별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뭔가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고 다른 반응을 얻거든요. 총리가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국정의 실질 책임자이고, 상대적으로 천황은 국정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움으로 인해 천황이 위안의 상징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럴 때 공내청과 정부가 항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갈등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천황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정치력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천황의 부상이 양면적일 수 있는 게, 정치권에는 이득이 되는 면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는 정치권의 이미지나 위상이 실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황실과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 천황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도에 매인 존재로 천황을 보는 게 맞겠지만, 예컨대 비디오 메시지 발표나 해외 방문에 있어서의 결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5) 천황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보면 여러 가지 의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격식과 규칙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헌법을 대체적으로 잘 숙지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을 지키지만, 가끔 동아시아 안보 등과 관련해서 아슬아슬한 정치적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황의 대국민방송 때 담화 내용은 전문가가 대필하지만, 그때 본인의 생각을 조금 넣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황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겸허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송에서는 천황이 '본인 인터뷰 외에 더 중요한 것 있으면 먼저 내보내라고 양보했다'는 이야기를 미담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천황의 위안 역할에 대해서 보면, 헤이세이 천황은 자기 아버지의 전쟁책임을 덮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위령여행도 하고, 8월 15일경에 기자회견을 하면 전쟁책임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공내청이 그 시기에는 기자회견을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동일본대진재 같은 자연재해가 터지니까 천황이 가는 데마다 크게 보도가 되던데, 역시 천황의 권위라는 게 아직도 인정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간 수상이 후쿠시마에 가니까 화를 내던 국민들이, 천황이 가니까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신문에 나오고 했으니까요.

천황의 인기와 현 정치권의 관계를 보면, 현재 소비세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 정치 불신이 클 때 천황에 대한 순종 또는 지지가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천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고이즈미가 2001년 총리 취임 때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해서 파문이 커지고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니까, 천황이 기자회견에서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죠. 이런 모습이 간혹 나오면, 인터넷 여론은 '역시 한일관계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천황폐하다' 반응이 나올

니다.

Q6) 전쟁책임에 대해, 독일 사회와 일본 사회가 너무 극명하게 달라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상징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런 자발적인 사죄가 정말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는 과거사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반성도 철저한데, 왜 일본에서는 애초부터 그런 게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독일에도 신나치나 극우 세력이 아직 존재하지만 극소수이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역사의식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천황의 영향력이 아직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국민 전반의 의식이나 감정을 실제로 대변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6) 역사 문제에 있어 독일과 일본이 차이가 생긴 가장 큰 요인은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아시아의 후진성이라고 봅니다. 우선 미국이 일본을 처음 점령했을 때는,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군국주의의 뿌리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의 분단과 중국의 공산화를 거치면서 전략을 바꾸어서, 일본을 관대하게 대하면서 파트너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1948년 12월에 A급 전범 7명을 사형시킨 바로 이튿날, 나머지는 맥아더 특사로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전에 공직추방을 당한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을 공직에서 축출하는 이른바 '역코스 정책'을 펴니다. 이때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서 우익의 정계 복귀가 허용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와 역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했죠. 또 독일 주변국 중에는 강대국이 많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왜곡과 은폐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쟁책임을 독재정권 집권기까지는 봉인하다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된 거죠.

Q7) 간단한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천황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인지요.

A7)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현재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자료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황이 전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일본의 언론, 정부, 궁내청의 행태가 모두 나쁘다는 게 뭐냐면, 천황이 이른바 '성단'을 내려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점만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천황은 전쟁 개시를 반대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도조 히데키가 아무리 독재권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천황의 허락 없이 전쟁을 시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쟁책임이라고 하면 대개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 또는 진주만 공격부터 미국과의 전쟁 때까지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적인 관점에서는 좀더 크게 보아서 근대 천황제의 전쟁책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개전할 때는 천황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가, 패전에 이르러서야 천황이 스스로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왜곡이고 은폐라고 봅니다.

/끝/